

# SK-N, 소비재·자원·자동차 강화

## 3대 사업 집중에 중국시장 개척 ... 2020년 매출목표 60조원 잡아

SK네트웍스가 자원개발, 소비재, 자동차 서비스를 3대 사업으로 집중 육성해 2020년 매출 60조원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SK네트웍스는 11월11일 중국 베이징(Beijing) SK타워에서 이창규 사장 주재로 워크숍을 열고 중장기 비전을 선포했다.

이창규 사장은 “중국 사업역량을 키우기 위한 연습은 지금까지 충분히 해왔다”며 “세계 최대 생산 및 소비 시장으로 매년 급속한 성장을 거듭하는 중국이야말로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뿌리를 내려야 할 요충지”라고 중국시장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SK네트웍스는 고객의 행복을 위해 미래를 준비하는 기업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세계시장을 한국, 중국, 비중국의 3대 축으로 나누기로 했다.

SK네트웍스는 중국시장 강화를 토대로 자원개발, Total Car-Life(자동차 서비스), 소비재 등 3대 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2020년까지 매출 60조원, 세전이익 1조5000억원, 브랜드 가치 20조원의 글로벌 리딩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11/12>